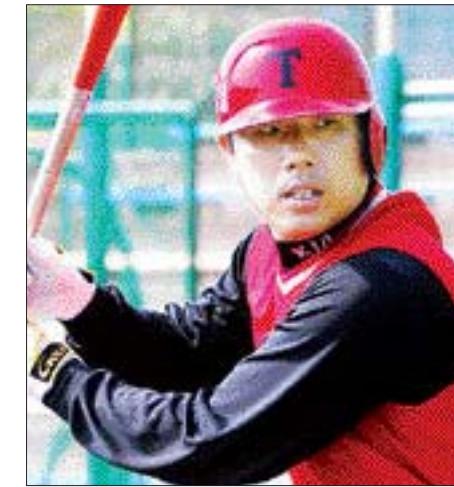




돌아온 '강속구 맨' 이범석·'100타점 신화' 홍세완

KIA 'V찬가' 부른다



이번주 히어로즈·롯데전... 상위권 도약 노려

'강속구 군단' 이범석과 '100타점 신화' 홍세완이 돌아온다.

지난주 3승1무2패를 거두며 절반의 성공에 머문 KIA 타이거즈가 어린이날인 5일 이범석을 선발로 앞세워 히어로즈와의 원정 3연전에 돌입한다. 8일에는 홈으로 돌아와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을 갖는다.

6위를 달리고 있는 KIA는 팀 재정비로 7, 8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히어로즈와 롯데의 추격을 뿌리치고, 상위권 도약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어제 통증으로 고전했던 이범석은 2일 처음으로 불펜 피칭을 소화하는 등 어린이날

등판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려왔다.

지난주 1군과 동행하며 경기감각 조율에 나섰던 이범석은 팬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선사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범석의 등판이 성공으로 끝날 경우 마운드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KIA는 지난주 마무리 한기주의 부진에 이은 선발진의 난조로 힘든 일정을 펼쳤다.

안정감 있는 투구로 마운드를 지킨다 서재웅이 지난달 29일 롯데전에서 2와 3분의 10이닝동안 6실점을 허용해 패전 투수가 됐고, 선발로 재출격한 곽정철도 지난달 30일 3과 3분의 20이닝동안 4실점을 허용해 마운드를 내려

왔다.

3일에는 21이닝 무실점 행진 중이던 로페즈가 1회 연속 안타로 순식간에 3점을 내 준 뒤, 4회 다시 내야수의 실책 속에 한화 타선에 뭇매를 맞으며 4이닝 동안 9실점(4자책)하고 무너졌다. 팀은 9-1로 뒤집던 7회 뒤늦게 5점을 뽑으며 분전했지만 경기는 6-9 패로 끝났다.

150km가 넘는 강속구로 지난 시즌 7승을 쟁겼던 이범석의 합류로 투수진 활용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가능해졌다.

절차부심 복귀를 노리던 홍세완도 타선에 무게를 더할 전망이다. 홍세완은 지난 2007

년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뒤 1년 10개월 만에 1군 무대를 밟게 됐다.

타격에 초점을 맞추고 몸 만들기에 몰두했던 홍세완은 지난주 2군 경기에서 3루수로 글러브까지 끼면서, 복귀를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 수비가 조심스러운 만큼 당분간 홍세완은 타격에서 힘을 보태게 된다.

새로 전력을 강화했지만 KIA의 일정이 만만치 않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연패에 빠진 히어로즈는 송지민·이승용 등 5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2군으로 내리는 초강수로 팀분위기를 바꾸고 KIA를 기다리

고 있다.

SK와 주중 3연전을 치른 뒤 광주를 찾게 될 롯데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롯데는 SK 전 13연패에 빠져있는데 지난달 양팀 사이에 '빈볼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이번주 각

오가 남다르다.

독기 오른 두 팀과의 승부를 위해 KIA는 '세밀한'이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지난 1일 4-2 무승부로 끝난 한화전은 월

듯 월 듯 풀리지 않는 팀 상황을 보여준다.

양팀에게 모두 패와 같은 무승부였지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은 한화 선수들은 승리라도 거둔 듯 활기찬 모습을 보이며 KIA 선수들과 표정이 엇갈렸다.

그만큼 KIA는 여러 차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선수 교체 타이밍과 작전 모두 엉망진창이 나면서 눈앞에서 1승을 날렸다.

집중력을 앞세운 세밀함이 새로운 변화를 준 KIA의 순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수노조 설립 공감대"

8개구단 대표 선수 참석

프로야구선수협회 첫회의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가 선수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여는 등 선수 노조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선수협회는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호텔에서 8개 구단 대표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프로야구선수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노조 설립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손민한 선수협회장을 포함해 SK 박경완, 정근우, 두산 이종우, 김현수, LG 조인성, 이진영, 삼성 배영수, 박진만, 한화 신경현, 최영필, KIA 김상훈, 히어로즈 강병식, 이택근, 롯데 이정훈, 이대호 등이 참석했다.

KIA 추진위원인 윤석민은 부상 치료 때문에 불참했다.

손민한 회장은 "선수 대표들이 모여 노조 설립에 대한 뜻을 재차 확인했다"며 "그동안

프로야구 선수 노조 준비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개선해 선수들이 노조 필요성을 알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시형 선수협회 사무총장도 "노동조합과 관련된 각 구단과 선수 입장은 일일이 들지는 못했지만 각 구단 선수 대표들이 노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선수협회는 18일 노조 설립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선수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KBO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이상국씨가 KBO 사무총장으로는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리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작했다.

선수협회 참가자들은 회의에 이어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의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천 의원은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일본에서는 1980년대 프로야구 선수 노조가 만들어졌으니 우리도 이제 선수 노조가 만들어질 시기가 됐다"면서 노조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연합뉴스

골 쪽을 다쳐 2군에서 시즌을 시작한 이혜천은 재활하면서 2군 경기에 등판해 컨디션을 조율했고 지난 2일 1군에 등록됐다. 2군 3경기에서 9이닝을 던져 삼진 9개를 잡았지만 안타 9개를 맞고 4실점, 평균자책점 4.00을 남겼던 이혜천은 이날 처음으로 일본 1군 타자들과 격돌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한편 5-3으로 앞선 9회 등판한 수호신 임창용은 1이닝을 깔끔히 막고 8세이브째를 올렸다. 최고시속 152km 뱀작구를 찍은 임창용은 12경기에서 12%이닝 동안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루카스 오일 레이싱 무한 질주

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위트만의 스피드월드 오프 로드 파크에서 열린 루카스 오일 레이싱 4라운드 경기에 참가한 차량들이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오헤어, 우즈 제치고 퀘일할로 챔피언십 우승

션 오헤어(미국)가 5주전 역전패의 악몽을 딛고 미국프로골프투어(PGA) 투어 퀘일할로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오헤어는 4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살럿의 퀘일할로 골프장(파72·7천 4420미터)에서 열린 대회 4리운드에서 3타를 줄이며 11언더파 277타를 적어내 버바 월슨, 루카스 글로버(이상 미국·10언더파 278타)를 1타차로 따돌렸다.

오헤어는 2005년 존 디어 클래식, 2008년 PODS 챔피언십에 이어 다시 정상에 오르며 27세의 나이에 PGA 투어 통산 3승을 수확해 20대 기수로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오헤어는 또 지난 3월 아널드 과머 인비테

이셔널에서 5타차로 앞서 있다가 타이거 우즈(미국)에게 역전패를 당했던 아픈 기억도 이번 우승으로 떨어냈다. 고교생이던 1999년 프로로 선언한 오헤어는 2005년 첫 우승을 차지하며 유망주로 떠올랐지만 우울했던 청소년 시절이 밝혀지면서 더 관심을 끌었다.

역전 우승을 노렸던 우즈는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지지 않아 4위(9언더파 279타)에 머물렀고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은 버디 5개를 보기 5개로 맞바꾸며 타수를 줄이지 못해 공동 11위(7언더파 281타)에 만족해야 했고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은 공동 47위(이븐파 288타)로 대회를 마치며 타이틀을 방어에 실패했다.

/연합뉴스